

“부모님께 농작물재해보험 선물하세요”

지난해 가입률 전남 52.3% 전국 1위...광주는 11.1% 그쳐
보험료 80% 지원·농가 20%만 부담...설 고향찾는 자녀들에 권유

지난해 처음 50%대를 넘긴 전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농정 당국이 품목을 늘리고 가입시기를 앞당겼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7만8809호로 집계됐다. 대상면적에 대한 가입면적으로 산출한 가입률은 52.3%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전남 보험 가입률은 2017년 45.7%(평균 30.1%)→2018년 48%(평균 33.1%)→2019년 52.3%(평균 38.9%)로 매년 오름세다. 광주 가입률은 지난해 11.1%로 전국에서 14번째를 차지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80%를 국비와 도비 등으로 지원하고,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품목 가운데 유기인증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자부담 20%를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농가 자부담 없이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로 도비 118억 원을 확보해 총 1180억 원의 사업비로 7만6000여 농가를 지원했다. 그 결과 피해농가에서 총 1891억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다. 전국적으로는 34만1000개 농가가 가입했고, 19만5000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2001년 보험 도입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 등과 함께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는 기존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67개로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보장 대상 자연재해는 조수해, 화재,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가을 동상해, 일소피해(햇볕 데임)로 인한 손해다. 농작물재해보험 대표 품목인 사과·배·단감·

■ 농작물재해보험 전남 가입일정

품목	지역	기간
메밀	전남	7월~8월
차	보성·광양·구례	10월~11월
밀	광주·전남	10월~11월
오디	전남	11월
복분자	함평·담양·장성	11월
무화과	영암·신안·목포·무안·해남	11월
유자	고흥·완도·진도	11월~12월
배추	해남	8월~10월
파	(대파) 신안·진도·(쪽파) 보성	(대파) 4월~6월 (쪽파) 8월~10월
팔	나주	6~7월
시금치	신안	9월
보리	보성·해남	10~11월

* 시범사업 일부 품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뽕 등 4개 품목은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판매 시작시기를 2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이들 품목은 다음 달 28일까지 47일간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부 보상 규정을 구체화하고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개선됐다. 열매숙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 수준은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가의 과도한 열매숙기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남 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7차례의 크고 작은 태풍을 겪으며 경영 안정을 위한 도움을 받았다”며 “고향을 찾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축협, 당기순익의 50억 돌파

광주축산농협(조합장 김호상)은 지난해 처음으로 당기순익의 50억 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축협의 당기순익은 2017년 34억 2200만원, 2018년 44억 4000만원 등 매년 오름세다. 지난해에는 연간 사업물량이 처음으로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다. 광주축협은 지난 16일 광주구 신촌동 본점 대회의실에서 광주권 축산인 200여 명과 신년교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축산업 경영 정보 공유와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김호상 조합장은 “광주·전남 축산업자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광주축협 사업물량 2조원 시대 조기 정착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건강한 농산물·함께하는 전남농협’ 결의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 임직원 40여 명은 지난 18일 무안군 남악 오룡산에서 ‘2020년 전남농협 사업추진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추진 구호로 ‘건강한 농산물,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전남농협’을 확정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관원, 설 성수품 원산지 식별법 홈페이지 게재

23일까지 원산지위반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꽃감, 대추,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등 명절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법을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농관원이 게재한 식별법에 따르면 대추는 표면의 색이 연하고 향이 진하면서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이 국산이다. 중국산은 표면이 짙은 색을 띠면서 향이 거의 없고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다.

국산 밝은 알이 굵고 윤택이 많으면서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는다. 중국산은 알이 작고 윤택이 거의 없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진다. 간도라지는 국산은 길이가 짧고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 일부가 남아 있다. 깨물어보면 부드러운 느낌으로 쓴맛이 거의 없다. 중국산은 상대적으로 길고 껍질이 잘 벗겨져 깨끗한 편이다. 깨물면 질긴 느낌과 쓴맛이 강하다. 국산 고사리는 줄기 아래 단면이 불규칙하

게 잘려있고 먹을 때 줄기가 연하게 느껴진다. 중국산은 줄기 아랫부분이 칼로 잘려 단면이 매끈하고 질긴 식감이 나타난다. 국산 표고버섯은 크기가 넓적하고 불규칙하고, 자루가 깨끗하고 신선도가 좋다. 중국산은 갓 크기가 둥글고 일정하고, 자루에 이물질이 붙어 있다. 취나물은 국산은 줄기가 가늘고 변색한 것이 적게 섞여 있다. 잎이 퍼진 상태로 건조돼 모양이 뚜렷하다. 중국산은 줄기가 굵고 변색한 것이 많이 섞여 있는 데다가, 둥글게 말린

■ 꽃감 국산·중국산 구별법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에 껍질이 적게 붙음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색이 탁하고 꼭지에 껍질이 많이 붙음

상태로 건조돼 모양이 뚜렷하지 않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설을 앞둔 오는 23일까지 22일 동안 백화점·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팔리는 제수용품과 선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합의...관세 철회 등 불안요인 작용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 39%...13년만 최고치
중소형 IT·인터넷·중국 소비주 등 상승 기대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18개월 만인 지난 15일 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9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무역합의문의 주요내용은 ▲지적재산권 침해 시 처벌수위 확대 ▲미국 제약사들의 중국 진출 확대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철회 ▲중국인 농산물 수입을 비롯한 공산품·에너지·서비스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로 수입을 확대하는 대신 미국은 관세 조정 ▲금융시장 개방과정에서 외국인 자본제한 철폐 ▲외환·환율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고 이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만들면서 2단계 합의도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관세철회나 인허가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합의파기를 선언할 수 있는 점은 향후 2단계 협상과정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미·중 1차 무역합의 이후 공식서명이 이루어진 지난주까지 글로벌증시는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모두 강세흐름을 이어가며 호재를 선반영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를 경신하며 상승행세를 이어갔고 코스피지수도 12월 저점 대비 10% 상승을 보였다. 수출주도적 산업구조를 가진 국내증시가 미·중 무역분쟁과정에서 당사국보다 더 민감한 반응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역협상이 진전된 현시점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1단계 무역합의가 공식화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5일까지 외국인투자자는 코스피지수에서 5조 640억 원을 순매도 했지만 합의 소식 이후 12월6일부터 지난주 17일까지 3조 5201억 원을 순매수 했다.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도 비중이 높은 IT대형주 상승으로 1월14일 기준으로 39%를 넘기면서 2006년 8월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외국인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고 무역협상타격을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인의 시각이 수급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기관이 올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으며 12월 연속(순매도합계 3조 7119억원) 순매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과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움직이면 중소형주 및 코스닥시장의 상승세가 약화되곤 했는데 ‘1월 효과’ 기대감 속에서도 코스닥 중소형 IT주와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특히 제약·바이오 비중이 높은 코스닥150지수의 상승이 미흡했다. 이번주에도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동조화를 보였던 달러대비 원화환율도 하락하고 있어 외국인 순매수구조는 이어지고 있고 기관의 차익매물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증시의 상승흐름과 함께하고 있는 국내 IT대형주는 신고가를 기록하며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여전히 2020년 실적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중소형 IT주와 시진핑주석 방문기대감과 중국 춘절(1월24~30일)을 맞아 중국소비주에 대한 상승기대감도 높다. 반도체 관련업종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국소비주(화장품·호텔 및 가전·엔터)와 중국 전기차 규제완화 및 수요확대로 2차전자 관련주의 추가 상승과 순환매에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2지역본부장)

